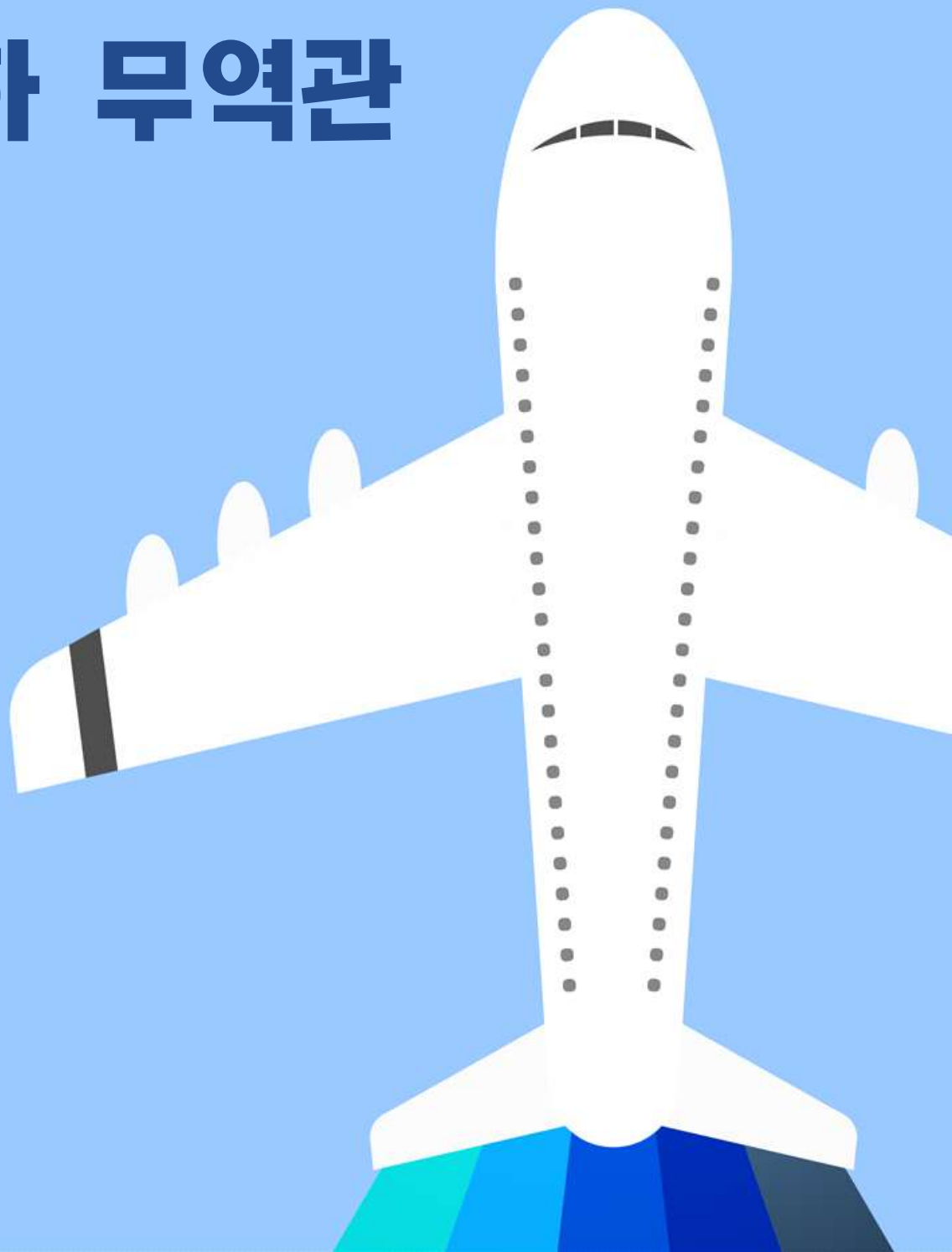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체코

프라하 무역관

Pragu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체코 개황 및 경제동향	01
II. 체코 무역·투자 동향	05
III.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6
IV. 체코 비즈니스 에티켓	22
V. 현지 유관기관 및 식당	24
VI. 주요 관광지 정보	27

I. 체코 개황 및 경제동향

1. 국가 개요

일 반 사 항		위 치
면적	78,870km ² (한반도 1/3, 산악 : 평지=3:7)	
인구	상주인구 1,051만명 ('22년 12월 기준)	
기후	연평균 9 ~ 10도, 대륙성 기후	
행정구역	13개 주, 1개 수도 (프라하)	
주요도시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 플젠 등	
국가원수	제만 대통령(Miloš Zeman) ['18년 3월 취임, '13년 이후 연임]	
총리	피알라 총리(Petr Fiala) ['21년 11월 취임]	

2. 체코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명목 GDP(US\$십억)	249.0	252.5	245.3	282.6	296.2
1인당 명목GDP(US\$)	23,464	23,709	22,942	26,411	27,609
1인당 GDP(PPP,US\$)	41,120	42,963	40,791	43,837	47,527
경제성장률(%)	3.2	3.0	-5.8	3.3	2.3
물가상승률(%)	2.1	2.8	3.2	3.8	12.3
수출(US\$백만)	202,751	199,676	192,497	227,209	-
수입(US\$백만)	185,102	179,569	171,588	212,232	-
FDI 규모(US\$백만)	11,008	10,108	9,417	5,805	-
총외채(US\$십억)	196.4	193.8	202.0	203.7	-
외환보유고(US\$십억)	142.5	149.9	166.1	173.6	170.1*

자료: IMF(GDP), 체코 재무부(물가상승률), 체코 통계청(수출입통계), 중앙은행(FDI, 총외채, 외환보유고)
주) 2022년 외환보유고 2022년 4월 30일 기준

3. 체코 경제동향

□ (경제성장) 우크라이나 사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21년 경제활동 정상화, 소비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 3.3% 기록
 - 백신보급, 치명률 감소 등을 근거로 방역조치가 완화된에 따라 '21년 하반기부터 경제활동 점진적으로 정상화
 - 보복소비, 높은 저축률 등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및 재고 증가가 GDP 성장을 뒷받침한 반면 수출생산 감소 및 재고축적에 따른 높은 수입증가율로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 '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장 부담 증가
 - 가계소비, 투자 증가 등 경제회복으로 '22년에는 견고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성장 불확실성 크게 증가
 -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예측되었던 원자재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심화되어 에너지, 소비자 물가 인상 등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체코 재무부는 '22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으나('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22년 경제성장률을 1.2%로 대폭 하향 전망('22년 4월)
 - 중앙은행, IMF, EU집행위 등 주요 기관도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하향해 '22년 체코 경제성장률 0.8%~2.3% 수준으로 전망
- * 경제성장률(재무부): 3.2%('18)→ 2.3%('19)→ -5.6%('20)→ 3.3%('21)→ 1.2%('22년 전망)

<주요 기관의 체코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	전망시점	2022년	2023년
체코 재무부	'22년 4월	1.2%	3.6%
체코 중앙은행	'22년 5월	0.8%	3.6%
IMF	'22년 4월	2.3%	4.2%
EU집행위	'22년 5월	1.9%	2.7%

자료: 체코 재무부, 체코 중앙은행, IMF, EU집행위

□ (실업률, 가계소비) 낮은 실업률 유지, 가계소비는 인플레이션으로 증가 제한 전망

○ 낮은 실업률 유지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임금보전 정책, 외국인 노동자 유출 등으로 체코 노동시장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21년 하반기부터 산업활동이 점진 회복됨에 따라 실업률 지속 하락

* 실업률: 2.2%('18) → 2.0%('19) → 2.6%('20) → 2.8%('21) → **2.5%('22 전망)**

* 현재 체코는 EU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 중 ('21년 EU 평균 실업률은 6.5%)

○ 소비 수요 증가, 그러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증가 폭 제한 전망

- '22년 가계소비는 수요회복 등으로 일부 증가할 것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증가 폭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명목임금 상승률: 9.6%('18)→ 6.7%('19)→ 0.0%('20)→ 5.7%('21)→ **6.0%('22 전망)**

* 가계소비 성장률: 3.5%('18)→ 2.7%('19)→ -6.8%('20)→ 4.8%('21)→ **0.5%('22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된 물류,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가계소비 및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 2.8%('19)→ 3.2%('20)→ 3.8%('21)→ **12.3%('22 전망)**

□ (금리)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

○ 중앙은행 목표치(2%)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금리 인상 단행

- 체코 중앙은행은 경제회복과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21년 8월부터 5차례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6개월 만에 0.5%에서 4.5%로 크게 인상
- '22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22년 4월 물가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4.2%(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해지자 '22년 5월 **5.75%의 기준금리**를 고시

□ (환율) 체코 코루나 강세 지속 전망

- 기준 금리 인상과 위험 자산 선호 심리 회복으로 인한 코루나 강세 지속
 - '21년 체코 코루나-유로화의 평균환율은 유로당 25.6 코루나 기록 (전년 대비 3% 하락)
 - 체코 중앙은행의 선제적이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ECB) 기준금리와의 차이 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체코 내 유로화 유입이 증가하여 체코화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체코 코루나 강세의 원인으로 작용
 - * 체코 금리 : 5.75% / 유럽중앙은행 금리 : 0% / 영국 영란은행 금리 : 1.0% ('22년 5월 기준)
 -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22년 3월 초 유로당 25.5 코루나를 상회하였으나, 체코 중앙은행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다시 환율 하락 및 안정
 - 체코 재무부는 '22년 체코 코루나-유로화 평균환율을 전년 대비 약 4.7% 하락한 유로당 24.4 코루나로 전망

II. 체코 무역·투자 동향

1. 체코 교역 현황

□ 교역현황

- 수출중심 경제, 무역수지 흑자 유지
 - 체코의 무역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2021년 기준 수출금액은 GDP의 약 80%, 수입은 GDP의 약 75% 차지
 - 2004년 EU 가입 이후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2005년부터 무역수지 흑자 유지
- 2021년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입 회복
 - 코로나에 따른 부진으로 2020년 체코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약 1,919억 달러, 수입금액은 4.4% 감소한 약 1,710억 달러 기록
 - 경제활동 재개 및 유럽지역의 수요 증가 등으로 2021년은 대외무역이 회복세를 띠면서 2021년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약 2,266억 달러 기록
 - 재고축적 등의 요인으로 2021년 수입금액도 전년 대비 23.5%의 큰 폭으로 증가한 약 2,113억 달러 기록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하면서 2021년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약 55억 달러 감소한 152억 달러 기록

<체코의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US\$백만,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금 액	157,937	162,709	182,203	202,233	199,133	191,902	226,608
	증감률	-9.8	3.0	12.0	11.0	△1.5	△3.6	18.1
수입	금 액	141,417	143,053	163,406	184,655	179,044	171,093	211,362
	증감률	-8.3	1.2	14.2	13.0	△3.0	△4.4	23.5
무역수지		16,520	19,656	18,797	17,579	20,090	20,809	15,246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5월 기준)

□ 국별 수출입 현황

○ 국별 수출 현황

- 체코의 유럽시장 교역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2021년 기준 EU 국가(영국 포함)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83%를 차지하는 반면 아시아는 4.6%로 미미한 수준
- 최대 수출국은 독일로 2021년 기준 對독일 수출이 전체 수출의 3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체코의 수출은 독일 경제상황에 따른 상당한 영향을 받음
- 그 외에 주요 수출국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이며, 한국은 체코의 39위 수출 대상국
- 경제활동 재개 및 유럽 수요회복 등으로 2021년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 증가

<체코의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 US\$백만,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독일	63,370	△3.2	62,723	△1.0	73,489	17.2
2	슬로바키아	15,095	△1.1	14,617	△3.2	18,296	25.2
3	폴란드	12,012	△1.6	11,964	△0.4	15,232	27.3
4	프랑스	10,238	△0.2	9,019	△11.9	10,471	16.1
5	오스트리아	8,555	△5.1	7,973	△6.8	10,145	27.2
6	이탈리아	7,572	△3.0	7,373	△2.6	8,745	18.6
7	영국	8,990	△4.3	7,774	△13.5	8,617	10.8
8	네덜란드	7,548	1.1	7,830	3.7	8,345	6.6
9	헝가리	6,462	6.5	6,349	△1.7	7,510	18.3
10	스페인	6,397	1.4	4,775	△25.4	5,694	19.2
39	한국	446	△8.4	510	14.3	533	4.5
총 수출		199,133	△1.5	192,902	△3.6	226,608	18.1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5월 기준)

○ 국별 수입 현황

- 2021년 기준 체코의 EU 국가(영국 포함)로부터 수입은 73.1%, 아시아는 16.6% 차지
-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10.4%), 한국(1.4%), 일본(1.1%)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음
- * 중국으로부터는 통신기기 및 부속부품, 자동차료 처리장치 및 부분품 등을 주로 수입
- 2021년 기준 최대 수입국은 독일로 전체 수입의 27.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국(10.4%), 폴란드(9.2%), 네덜란드(6.4%) 순
- 현지 진출 기업의 부품수입에 힘입어 한국은 체코의 14위 수입대상국

<체코의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 US\$백만,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독일	50,935	△5.0	47,790	△6.2	58,373	22.1
2	중국	16,561	6.9	19,275	16.4	21,921	13.7
3	폴란드	16,086	△4.2	15,071	△6.3	19,450	29.1
4	네덜란드	11,036	13.8	11,392	3.2	13,582	19.2
5	슬로바키아	9,710	△12.0	8,876	△8.6	11,892	34.0
6	이탈리아	7,041	△5.2	6,647	△5.6	8,571	28.9
7	오스트리아	6,749	△6.2	6,329	△6.2	8,114	28.2
8	프랑스	5,577	△3.7	5,252	△5.8	6,102	16.2
9	헝가리	4,889	△3.2	4,756	△2.7	5,766	21.2
10	미국	3,526	△0.2	3,532	0.2	4,521	28.0
14	한국	2,539	△14.3	2,495	△1.7	2,854	14.4
총 수입		179,044	△3.0	171,093	△4.4	211,362	23.5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5월 기준)

□ 품목별 수출입 현황

○ 품목별 수출 현황

- 체코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료 처리장치,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및 부속품 등
-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산업생산 회복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 수출이 증가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에너지 수출이 크게 증가함
- 체코는 유럽의 제4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각각 10.3%, 6.5%로 높은 비중 차지

<체코의 10대 수출품목>

(단위 : US\$백만, %)

순 위	품목	HS Code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8703	22,426	△1.5	20,678	△7.8	23,378	13.1
2	자동차료 처리장치	8471	13,256	△2.3	14,379	8.5	14,955	4.0
3	자동차부품	8708	15,166	△3.0	13,184	△13.1	14,682	11.4
4	통신기기 및 부속부품	8517	11,117	17.9	11,895	7.0	11,342	△4.6
5	전선 및 케이블	8544	3,049	△7.3	2,959	△3.0	3,794	28.2
6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용기기	8536	2,857	△7.7	2,714	△5.0	3,557	31.1
7	완구	9503	2,692	3.9	2,901	7.8	3,384	16.6
8	의자 및 부분품	9401	3,238	△7.8	2,731	△15.7	2,937	7.5
9	전기에너지	2716	1,333	△12.9	899	△32.6	2,757	206.7
10	의약품	3004	2,216	5.8	2,371	7.0	2,670	12.6
총 수출			199,133	△1.5	192,902	△3.6	226,608	18.1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5월 기준)

○ 품목별 수입 현황

- 체코는 자동자료 처리장치,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및 부속부품, 의약품, 자동차 등의 품목을 주로 수입
- * '21년 자동자료처리장치 주요수입국(비중): 중국(45.8%), 독일(11.7%), 네덜란드(10.0%), 아일랜드(6.0%)
- * '21년 자동차부품 주요수입국(비중): 독일(38.1%), 폴란드(15.1%), 한국(8.4%), 슬로바키아(7.8%)
- 2021년에는 석유가스, 석유 및 역청유, 전선 및 케이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신기기 및 부품, 전자집적회로류 수입은 감소

<체코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 US\$백만, %)

순 위	품 목	HS Code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자료 처리장치	8471	8,291	3.0	9,544	15.1	11,233	17.7
2	자동차부품	8708	11,170	△0.6	9,656	△13.6	10,817	12.0
3	통신기기 및 부속부품	8517	11,488	16.6	11,896	3.6	10,690	△10.1
4	의약품	3004	4,272	4.4	4,538	6.2	4,831	6.5
5	자동차	8703	4,146	△1.8	3,616	△12.8	4,547	25.7
6	자동자료 처리장치 부분품	8473	2,537	△2.0	3,800	49.8	3,795	△0.1
7	석유와 역청유	2709	3,741	△5.7	2,147	△42.6	3,590	67.2
8	석유가스	2711	1,932	△19.6	1,143	△40.8	3,590	214.1
9	전자집적회로류	8542	3,078	△17.5	3,736	21.4	3,540	△5.2
10	전선 및 케이블	8544	2,781	△5.4	2,724	△2.0	3,504	28.6
총 수입			179,044	△3.0	171,093	△4.4	211,362	23.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22년 5월 기준)

2. 한국과의 교역 현황

□ 수출입 동향

- 양국 교역 현대자동차 투자('06년) 및 한-EU FTA('11년)로 본격화
 -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양국 교역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 2021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40억 달러 달성
 -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한국의 對체코 수출이 크게 증가, 2020년, 2021년 對체코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27.4%, 9.7% 증가
- 2021년 기준 체코는 한국의 31위 수출대상국이며, 48위 수입대상국으로 무역수지 기준으로는 17위 교역국
 - EU국가 중 체코는 독일, 폴란드, 영국 등에 이어 한국의 10위 EU 수출대상국
- 對체코 무역수지 지속적으로 흑자 유지
 -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의 진출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출의 본격화로 2006년부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무역수지 흑자 유지

<연도별 對체코 수출입 동향>

(단위: US\$백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수출	2,040	2,176	2,212	2,452	2,114	2,694	2,954
	증감률	12.6	6.6	1.7	10.8	△13.8	27.4	9.7
수입	수입	577	619	716	864	852	944	1,094
	증감률	3.4	7.3	15.6	20.7	△1.4	10.8	15.9
무역수지		1,463	1,557	1,496	1,588	1,262	1,750	1,860
총 교역량		2,617	2,795	2,928	3,316	2,966	3,638	4,04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22년 5월 기준)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수출 현황

-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체코에 현대자동차 및 다수의 한국 부품업체가 진출함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체코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체코 수출의 38.3% 차지
- * '21년 주요 체코 수출품(비중) :자동차부품(38.3%), 컴퓨터(9.0%), 산업용 전기기기(5.5%), 반도체(3.5%), 기타철강금속제품(3.2%)
- 2020년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차생산 설비 수입 등에 힘입어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조명기기 수출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대폭 증가
- 2021년 합성수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조명기기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

<체코 10대 수출 품목>

(단위: US\$백만, %)

순 번	MTI 코드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	자동차부품	748	△12.3	871	16.4	1,131	29.9
2	813	컴퓨터	73	△47.5	228	212.6	267	17.1
3	842	산업용 전기기기	23	△36.0	143	513.0	163	14.3
4	831	반도체	68	138.1	117	73.6	103	△11.9
5	690	기타철강금속제품	113	△16.2	90	△19.7	96	5.6
6	826	조명기기	24	△9.5	70	187.0	90	27.4
7	711	원동기 및 펌프	148	△14.7	125	△15.6	87	△30.1
8	815	계측제어분석기	60	11.5	108	79.9	86	△20.6
9	214	합성수지	70	△18.8	60	△14.9	82	37.5
10	741	자동차	69	△16.1	53	△23.8	73	36.9
총수출			2,114	-13.8	2,694	27.4	2,954	9.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22년 5월 기준)

○ 품목별 수입 현황

- 한국은 체코로부터 자동차부품, 전자응용기기(전자 현미경),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 분석기 등을 주로 수입
- * '21년 주요 對체코 수입품(비중) :자동차부품(14.5%), 전자응용기기(14.2%), 원동기및펌프(9.5%), 계측제어분석기(8.4%), 기계요소(5.0%)
- 2021년 기타산업기계를 제외한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
- 특히, 합성고무, 컴퓨터, 전자응용기기 등의 수입금액이 큰 폭 증가

<對체코 10대 수입 품목>

(단위: US\$백만, %)

순 번	코드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	자동차부품	128	△9.8	143	12.1	159	11.0
2	814	전자응용기기	95	△17.0	119	25.1	155	30.0
3	711	원동기 및 펌프	77	△0.4	92	19.6	104	12.7
4	815	계측제어분석기	89	27.2	89	0.9	92	3.4
5	751	기계요소	50	△7.9	44	△11.5	55	23.5
6	320	고무제품	27	23.1	47	71.0	48	2.7
7	215	합성고무	12	131.0	20	66.2	40	98.3
8	729	기타산업기계	6	39.3	26	341.6	24	△9.5
9	310	플라스틱 제품	18	△4.3	19	3.7	22	16.3
10	813	컴퓨터	34	329.2	11	△68.0	20	84.4
총수입			852	△1.4	944	10.8	1,094	15.9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5월 기준)

3. 투자 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현황

- 체코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FDI(FDI positions)는 약 1,952억 달러이며, 2021년 유입된 FDI(FDI Flows)는 약 58억 달러(잠정치)인 것으로 집계됨.
- 체코는 1998년 5월 투자 인센티브법 도입 이후 FDI 유치를 가속화하고 EU 가입 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2019년 9월 6일부터 고부가가치 투자에 집중한 투자 인센티브 개정안 시행, 제조업 투자 혜택 축소 및 R&D 및 SW/IT 개발 투자 혜택 확대

<연도별 체코의 FDI(FDI Flows)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제조분야	2,924	△1,541	7,506	7,923	7,275	8,562	7,253	3,648
제조분야	2,571	2,006	2,312	1,596	3,733	1,546	2,164	2,157
총 합계	5,495	465	9,818	9,519	11,008	10,108	9,417	5,805

자료 : 체코중앙은행(2022년 5월 기준 최신자료)

*주) 2021년은 잠정치

○ 분야별 투자 동향

- 2020년 말 FDI(FDI positions) 기준으로 비제조업 분야가 전체의 73%, 제조업 분야는 27% 차지
- 제조업 중 자동차산업이 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 부문은 금융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에 많은 투자 유치

○ 국별 투자 현황

- 2020년말 FDI(FDI positions) 기준으로 네덜란드(329억 달러), 룩셈부르크(312억 달러), 독일(290억 달러)로 3개국으로부터 투자가 전체의 48% 차지
- 한국의 체코 FDI 규모는 약 41억 달러로 12위 투자국이며,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
- 그 외 아시아 국가 투자규모는 일본 25억 달러, 중국은 2억 달러 수준

□ 한국과의 투자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2021년 9월 누적 기준 한국의 對체코 투자는 신고기준 309건 약 22억 달러, 투자 기준 약 18억 달러 기록

<對체코 투자진출 동향>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규 법인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3	18	100,405	12	98,467
2018	10	35	256,118	43	244,690
2019	6	21	70,218	31	65,338
2020	3	14	25,121	18	21,936
2021	2	21	156,082	24	124,705
누적 총계	98	309	2,194,812	368	1,820,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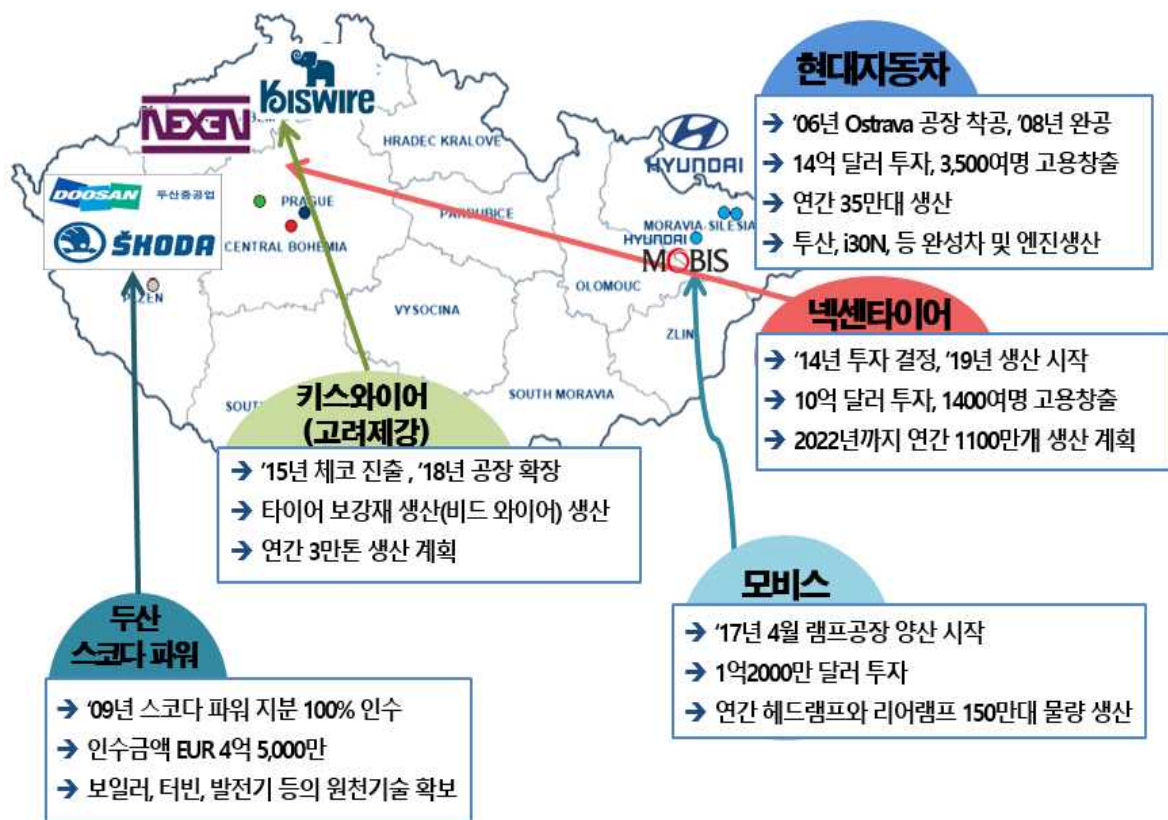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5월 기준)

- 체코 중앙은행의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對체코 FDI 금액(FDI postions)은 약 41억 달러로 체코 전체 FDI의 2.1% 차지(전체 국가 중 12위, 비EU 지역 최대 투자국)
 - * 중앙은행은 금융 분야와 자본투자, 재투자 금액을 포함하여 투자통계로 산정
 - 체코 투자청에서 발표한 투자 인센티브 승인 프로젝트 규모 기준, 누적 투자금액('98년~'21년 말)은 약 720억 코루나(약 33억 달러)로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3위 투자국
- 對체코 투자는 자동차 산업의 대규모 투자 중심
 - 현대자동차 노쇼비체 공장투자는 체코투자청 기준 최대 규모(약 14억 달러)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이며, '14년 넥센타이어의 자테츠 지역 생산공장 설립 투자(약 10.3억 달러)는 3위 기록
 - 對체코 투자금액의 약 65%는 자동차분야 제조업 투자로, 한국 진출기업 대부분은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30여 개 이상의 계열사, 유관 부품 생산 업체 및 타이어 업체(넥센, 한국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업체
 -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우 주로 동부 모라비아 지역에 진출한 가운데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판매 및 서비스 법인 등은 프라하 인근에 소재

○ 대체코 M&A 및 확장투자

- 두산중공업은 '09년 스팀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의 스코다파워 지분 100%를 4억 5,000만 유로에 인수, 발전소 3대 핵심 설비 원천기술 확보
- 현대모비스는 기존 공장 외 오스트라바 인근 산업단지에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램프 공장을 건설해 '17년부터 양산 시작
- 타이어 보강재를 생산하는 고려제강(키스와이어)는 '15년에 체코에 진출해 생산을 시작했으며 '18년에 공장 확장 투자

<주요 한국기업 진출 현황>



자료 : KOTRA 프라하 무역관

Ⅲ.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 출입국 정보

□ 출입국

- 한국-체코 간 비자 면제협정('94.11 발효)에 따라 한국인은 체코 내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시 무비자 체류 가능
 - 무비자 단기 체류는 한-체코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단순방문(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의 경우에 해당
 - 만약 체코에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90일마다 제3국을 다녀오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취득 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으니 장기체류 희망 시 반드시 유효한 사증 취득 권장
- 코로나19 관련 입국절차
 - 코로나19 외국인 입국 제한 정책은 '22년 4월 9일부터 폐지되어, 체코를 관광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음성결과서 불요) 입국 가능
 - '22년 5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종료되어, 현재 체코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을 통해 첫 입국 시 입국심사를 거쳐 수화물 찾는 곳(Baggage Claim)에서 수화물 찾은 후 출구로 나가면 됨
 - EU 쉥겐조약으로 인해 EU 첫 입국국가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경우, EU가입국 간 이동에는 별도의 입국심사 없음
 - 여권은 유효잔여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EU 시민들은 유효한 신분증만 가지고 체코 입국 가능
- 출국 시에는 체크 인 후 출국심사대에서 여권과 항공권 제시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출국 항공편 탑승

□ 통관

- 체코 입국 시 면세 한도는 항공과 해상 여행객은 430유로, 육로 여행객은 300유로이며, 15세 이하의 경우 200유로로 제한
 -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세관 검사소에서 세관심사를 거쳐야 함
- 면세 범위
 - (술) 알코올 도수 22% 초과 주류 1ℓ, 또는 22% 이하 2ℓ, 또는 와인류 4ℓ, 또는 맥주류 16ℓ
 - (담배) 껴련 낱개 200개비, 또는 가는 엽껴련(3g 이하) 100개비, 또는 엽껴련 50개비, 또는 기타 담배류 250g
 - (외국환) 1만 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 무기류, 약물, 폭발물, 음란영상매체, 고기류, 유제품 등은 반입 금지

□ 환전

- 2022년 5월 18일 기준, 체코중앙은행 고시 체코 코루나 환율
: 23.453 CZK/USD, 24.710 CZK/EUR
- 호텔 및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Master, Visa 등) 사용이 가능하며, 환전 시 필요금액만 환전(필요시 무역관 직원에 문의)
 - 일부 환전소는 환율을 좋게 고시하는 대신 고율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체코 코루나는 100%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며, 시내 거리에서 환전을 권유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

□ 국제전화 사용

-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경우 자동 로밍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출국 전 사용 통신사를 통해 자동 로밍 여부를 확인 필요.
 - 모바일 데이터 로밍을 사용할 경우 많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
 - 체코 및 유럽에서 사용 가능한 유심(보다폰, O2 등)을 공항, 통신사 지점 등에서 구매해 사용 가능

2. 기후 및 시차

□ 기후

- 체코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며 여름에는 습도가 높지 않아 무덥지는 않은 편
 - 연평균 기온은 10~11도 정도이며 여름 최고 기온은 32~37도,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20도 정도
 -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큰 편으로 특히 봄과 가을에는 낮 기온이 높아도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투를 구비하는 것이 좋음
 - 연평균 강우량은 619mm로 강우일은 월 5~9일 정도이며, 특히 가을철 (10~11월)에는 일교차가 심함

<체코 주요도시 연평균 기후>

구분	프라하	브르노
연평균 기온(℃)	10.2	10.6
-최고온도	38.9	34.8
-최저온도	-17.1	-11.2
연평균 강우량(mm)	473	523
-일일 최대 강우량(mm)	75.1 (5월)	101.8 (7월)
-일일 최대 적설량(cm)	19 (11월)	11 (9월)

- 시차 : 한국이 체코보다 8시간 빠름 (서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빠름)
 - 2022년 서머타임 기간: 2022.3.27.(일) 02:00 ~ 2022.10.30.(일) 03:00

3. 생활정보

☐ 식수

- 체코에서 수도물은 위생적으로 식수로 음용하여도 문제없으나, 석회질이 많은 편으로 생수 음용을 권장

☐ 전압

- 220V, 50Hz를 사용 중이나 전기 과부하를 막는 막대기가 고정돼 있으므로 유럽 표준형 기기만 사용 가능(대부분 한국 전자기기 사용 가능)

☐ 신변 안전

- 전반적으로 치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편
 - 하지만 성수기에는 인파가 많은 찰스다리, 구시가지 광장 등 관광객이 붐비는 식당, 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지갑 등 귀중품을 소매치기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함
 -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일 사용할 현금만 소지하는 것이 안전

<위급 상황 시 연락처>

화재신고	150
범죄신고	경찰 158, 시 경찰 156
응급환자	155
통합응급연결	112 (EU 회원국에서 이용 가능한 공통 응급번호로 응급상황 시 경찰, 소방서 등 연결, 영어 가능)

4. 교통정보

□ 택시

- 택시 사용 정보
 - 대부분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시 호텔 프런트에서 일반 택시를 불러달라고 할 수 있음. 호텔 앞 대기 택시는 요금이 다소 비싼 편임
 - 시내 중심가에 대기 중인 택시는 거의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므로,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목적지를 기사에게 말하고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승차하는 것이 권장됨
-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콜택시는 AAA(+420-222-333-222), City Taxi(+420-257-257-257), Modry Andel(+420-737-222-333) 등이 있음
 - 해당번호를 호출하면 안내원이 나오며 대부분 영어 구사 가능하며, 웹사이트 또는 각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
 - 전화를 할 경우 거리명 및 번지수, 호텔명 등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좋음
- 공유택시 이용 가능
 - 프라하의 경우 우버, Bolt, Liftago 등 공유 택시 사용이 가능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
 - 일반적으로 공유택시가 일반 택시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편임

□ 프라하 대중교통 이용 안내

- 승차권 구입
 - 프라하 시내버스, 트램, 지하철은 한 장의 티켓으로 이용 가능
 - 승차권은 각 대중교통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지하철 인포메이션 센터, 신문판매소(Tabak) 또는 일부 미니마켓 등에서 구매 가능
 - 최근에 트램 내 승차권 판매기가 설치되어 트램에서 바로 구매(비접촉식 결제카드 사용, 구매 시점부터 효력 발생) 가능
 - PID Litacka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중교통 여정 검색 및 해당 구간의 승차권 구입 가능

○ 승차권 가격

-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승차권 가격은 유효시간 내 무제한 환승이 가능
- 사용 시간별 가격은 30분 30코루나, 90분 40코루나, 1일(24시간) 120코루나, 3일(72시간) 330코루나

○ 승차권 사용법

- 승차권 구매 후 대중교통 이용 시 개찰기를 통해 개찰해 사용 시작(최초 사용) 소요 시간이 승차권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한 승차권으로 간주됨을 유의 (승차권 구입 후 개찰되지 않은 경우는 무임승차로 간주)
- 검표원의 불심검문 시 유효한 승차권을 제시해야 하며, 무임승차의 경우 최대 1,500코루나의 벌금 부과, 특히 외국인은 중점 단속 대상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 유효한 승차권을 항상 소지하는 것이 중요

○ 지하철

- 프라하 지하철 노선은 A선(초록색), B선(노란색), C선(빨간색)으로 총 3개 노선
- Muzeum(A,B선), Muzeum(A,C선), Florenc(B,C선)역에서 환승 가능
- 지하철 사용 시 승차권은 승강장을 내려가기 전 에스컬레이터 앞의 개찰기에 승차권을 넣어 사용 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 기록

○ 트램

- 프라하의 경우 트램이 잘 발달돼 지하철역 사이와 주요 중심지 트램으로 이동 가능
- 트램 이용 시 승차권을 트램 내부의 개찰기에 넣어 사용 개시 시점 기록하거나 트램 내 승차권 구매기에서 바로 구매 가능(구매시점부터 사용시간 적용)

○ 대중교통 노선

- 프라하 대중교통 노선도 제공 링크:
<https://www.dpp.cz/en/timetables/traffic-scheme>

IV. 체코 비즈니스 에티켓

1. 체코 문화 및 비즈니스 에티켓

□ 체코의 역사·문화적 특징

- 중동부유럽(CEE)의 특유의 라틴문화와 동방 문화의 융합된 문화
 - CEE는 서유럽의 라틴 기독교 문명과 러시아의 동방 정교문화권 등 혼재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구 공산권 국가의 경우 아직 공산주의의 잔재가 일부 남아있음
-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이 일반적이며, 부모나 노인과 같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인정
 - 체코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빠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으나, 평등관이 강한 편으로 상명하복의 한국문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체코 비즈니스 에티켓

- 미팅 약속
 - 약속은 사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전에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부득이하게 미팅에 늦을 경우 사전에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
 - 출퇴근 시간이 빨라서 약속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점심시간 제외)가 좋으며, 금요일 오후 미팅은 주말을 보내기 위해 교외로 가는 경우가 많아 피하는 것이 좋음
 - 체코의 법정휴가는 1년에 4주인데, 대부분 여름휴가가 7월 중순~8월 중순 사이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미팅 제안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체코인들과 악수를 할 때는 길지 않게, 상대방의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
 - 호칭은 성(Last name) 앞에 Mr. 또는 Ms. 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
- 거래 관련 정보는 일괄 송부
 - 체코 업체들은 생소한 외국 업체와 처음 접촉할 때 거래 희망 서신,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는 것을 선호
 -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단한 자사 소개와 거래를 희망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회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가격 결정 시 유의사항

- 체코에서 한국 제품 수입 시 주로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며 가격을 제시할 때 FOB Korea(Busan)보다는 CIF Hamburg로 하는 편이 바이어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됨
- 체코 바이어들은 첫 거래 시 가격 오퍼를 받았을 때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을 경우 가격 협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바로 상담진행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음
- 수출 가격 및 최소 주문량은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므로 최대한 낮춰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체코 정부 및 일반 기업들의 경우 신용 상태가 양호, 서유럽 국가들과 거래 시 외상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의 거래 시에도 외상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무조건적인 거절보다는 사전에 바이어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수출보험을 통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함
- 특히, 기계류의 경우 현지 유지보수 업체 존재 여부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전 A/S 전담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
- 해상 물동량의 경우 이용 항구는 70% 정도가 함부르크항으로 오고 나머지 30% 정도가 슬로베니아의 코퍼항을 통해 유입

V. 현지 유관기관 및 식당

1.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 프라하 무역관 안내

- 주소 : Panorama Center, Škrétova 12,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 전화 : 420-245-005-650

성명/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소
손병철 관장	245 005 655	602 313 001	bcsn@kotra.or.kr
이정빈 과장	245 005 654	720 022 014	jblee@kotra.or.kr
이승현 과장	245 005 656	725 759 731	judge0047@kotra.or.kr



□ 찾아오시는 방법

- 공항에서 택시 이용 시(AAA Taxi, City Taxi, 우버 등)
 - 비용은 약 600코루나(약 24유로)내외 (우버의 경우 300~400코루나), 소요시간은 약 30분 내외
 - 택시 승차 후 프라하무역관의 정확한 주소만 알려주면 무역관 건물 앞 하차 가능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 공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종점인 지하철역 Nádraží Veleslavín(Line A)에서 하차 후 지하철로 갈아타고 Muzeum(Line A)역에서 하차
 - 무역관은 A Line(녹색)과 C Line(적색) 노선의 환승역인 Muzeum역으로 부터 100m 정도 거리에 위치 (국립자연사 박물관 뒤 도로 건너편 "Panorama 건물")

2. 대사관 및 항공사 연락처

☐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주 소	Slavickova 5, 160 00 Praha 6-Bubenec, Czech Republic
전 화	(420) 234-090-411
팩 스	(420) 234-090-450
이메일	czech@mofa.go.kr
긴급연락처	(420) 725-352-420 (근무시간 외)

☐ 프라하 지점 주요 항공사

대한항공	(420) 222-710-171 /Jungmannova 26/15, 110 00 Prague 1
체코항공	(420) 284-000-601 /K Letišti 1068/30, Ruzyně, 161 00 Praha 6

3. 호텔 및 식당

☐ 프라하 주요 호텔

Corinthia	(420) 261-191-211 /Kongresová 1655, 140 69 Praha 4
Majestic Plaza	(420) 221-486-100 /Štěpánská 33, 110 00 Praha 1
Diplomat	(420) 296-559-111 /Evropská 15, 160 41 Praha 6
Grandior Hotel	(420)226-295-111 /Na Poříčí 1052/42, 110 00 Praha 1

☐ 현지 식당

식당명	주소	연락처
Marina Grosseto Ristorante	Alsovo nabrezi, Praha1	(420) 605-454-020
Restaurace U Pinkasů	Jungmannovo nám. 16, Praha1	(420) 221-111-152
Potrefená Husa Platnéřská	Platnéřská 88/9, Praha1	(420) 266-311-497
Kolkovna Celnice	V Celnici 1031/4, Praha1	(420) 224-212-240
Budvarka Dejvice	Wuchterlova 336/22, Praha 6	(420) 222-960-820
U Vejvodů	Jilska 4, Praha 1	(420) 224-219-999
U Fleků	Křemencova 165/11, Praha 1	(420) 224-934-019
U Prince	Staroměstské nám. 460/29, Praha 1	(420) 739-609-779
U Tří růží	Husova 10/232, Praha 1	(420) 601-588-281

□ 한국 식당

식당명	주소	연락처
한일관(Hanil)	Slavikova 24, Praha 3	(420) 222-715-867
토모(Tomo restaurant)	Mánesova 35, Praha 2	(420) 222-233-695
마미 레스토랑(Mamy)	Benediktska 3, Praha 1	(420) 224-815-009
야미스시(Yami Sushi)	Masná 1051/3, Praha 1	(420) 222-312-756
본(Bon Gallery&Restaurant)	Jaselska 10, Praha6	(420) 233-326-670
비빔밥코리아 (Bibimbab Korea)	Chlumova 1, Praha 3	(420) 737-917-956
밥(bab rýže)	Náplavní 1501/8, Praha 2	(420) 774-770-305
가람(Restaurant Garam)	Janovského 963/3, Praha 7	(420) 739-289-963
하나비(Hanabi)	Petrská 11, Praha 1	(420) 222-324-634
유니쿠(Yuniku BBQ)	Slezská 1297, Praha 2	(420) 777-667-083
프라하포차 (Pocha)	Oldřichova 506/14, Praha 2	(420) 727-908-107
포차비스트로(Pocha bistro)	Táboritská 464/10, Praha 3	(420) 724-888-281
비원(Biwon Korea)	Sokolská 1792/52, Praha 2	(420) 739-078-927
소울치킨(Soul Chicken)	Koněvova 2b, Praha 3	(420) 774-977-811
프라하 맛집(Matzip)	Dusni 6, Praha 1	(420) 608-889-501
프라하 꼬기(Praha ggogi)	Spálená 98/31, Praha 1	(420) 702-139-411

□ 기타 식당

식당명	주소	연락처
BASU - 중식	Slovanský dům, Na Příkopě 859/22, Praha 1	(420) 221-451-771
Macao - 중식	Truhlářská 3, Praha 1	(420) 222-316-093
HANOI -베트남식	Slezska 981/57, Praha 3	(420) 728-774-637
Remember -베트남식	Biskupská 1753/5, Praha 1	(420) 602-889-089
Modrý Zub -태국식	Spálená 29, Praha 1	(420) 222-540-064
CANTINA -멕시코식	Újezd 38, Praha 1	(420) 257-317-173
Grosseto -이탈리아식	Francouzská 79/2, Praha 2	(420) 224-252-778
Mash hana -일식	Badeniho 291/3, Praha 6	(420) 733-790-818

VI. 주요 관광지 정보

1. 프라하(Prague, Praha)

□ 프라하 정보

-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로 면적은 496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약 128만 명 수준
 - 과거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이자 한때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프라하는 1,100년의 역사를 지닌 중부유럽의 대표도시
 - 프라하 성, 찰스 다리, 구시가 등의 프라하 역사지구는 1992년 UNESCO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단위 면적으로는 최대 규모 기록
 - 중세시대부터 현재까지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감탄스럽게 보여주는 흔적들 덕분에 연간 600~700만 명이 프라하를 찾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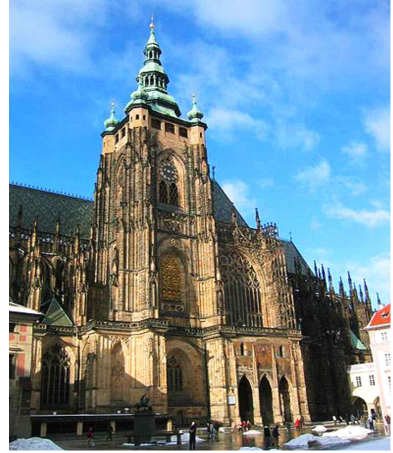
□ 주요 관광지

- 프라하 성(Pražský Hrad)
 - 프라하 성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블타바 강 서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성으로 프라하의 초기 역사부터 존재해 왔으며 프라하의 상징이자 체코의 상징
 - 보헤미아의 첫 왕가인 보르지 보이에 의해 880년경 처음으로 축조되었음.
 - 13세기 오타카르 1세 때 프라하 성은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 방어요새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구왕궁은 15세기 블라디슬라브 2세 치하에 재건축되었음.
 - 1526년 이후부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보헤미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프라하 성은 16세기 중반까지 왕가의 여름별장 격으로 사용됨.
 - 18세기 중반에 들어 오스트리아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재건축을 실행, 현재의 프라하 성 외관이 만들어 짐
 -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래, 프라하 성은 대통령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프라하 성 내 주요 볼거리로는 비투스 성당, 황금소로, 성 이르지 바실리카, 구왕궁 등이 있음



○ 비투스 성당(Katedrála svatého Víta)

- 프라하 성에 가장 처음 지어진 성당은 9세기에 지어진 성모 마리아 성당이였으나 925년 보헤미아의 바츨라프 왕이 성 비투스의 성해(왼팔)를 기증 받은 후 유해 위에 로툰다 형식의 성당을 건설
- 사후 1344년 11월 프라하가 주교령에서 대주교령으로 승격되고 카를 4세의 대관식을 진행할 장소 및 그의 가족묘가 들어갈 성당이 필요해 지금의 고딕양식으로 재건축이 시작됨
- 성당 공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후스전쟁이 발발했으며, 쇠약해진 왕가의 통치력, 재력 한계로 비투스 성당은 거의 400년간 반만 완공된 채로 방치
- 1844년 민족주의가 고취되면서 ‘성 비투스 대성당 완공 위원회’라는 모금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재건이 시작되었고 자금이 떨어져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탄생하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1929년 9월 공식적으로 완공됨.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소요되었으며 로툰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총 1,000년이 걸린 셈임



○ 황금 소로(zlatá ulička)

- 원래 성의 방어를 담당하던 성벽으로 설계되었으며 16세기부터 일반인들에게 임대되어 연금술사와 같은 하층민들이 살기 시작, ‘황금소로’라는 이름을 갖게 됨
- 이 중 22번지 집에서 카프카가 프라하 성을 모티브로 한 소설인 “성(The Castle)”을 집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 카를교 (Karlův most)

- 1357년 카를 4세의 명령으로 지어진 다리로, 중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다리로 평가
- 1841년까지 말라스트라나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였음
- 1357년 7월 9일 오전 5시 31분에 착공되었는데 이 날짜는 동양에서도 길한 숫자로 여기는 홀수 배열인데다 거꾸로 읽어도 135797531로 영원성을 상징
- 겨울에 유빙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리 밑을 거대한 교각으로 받치고 달걀 노른자를 섞어서 돌과 돌 사이를 접착시키는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강하고 튼튼한 다리가 탄생했으며 1407년에 완공됨
- 다리에 장식된 30개 석상 중 하나인 얀 네포무크 성상 앞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로 해당 석상 앞은 늘 소원을 비는 관광객들로 붐빔



○ 구시가 광장(Staroměstské náměstí)

- 구시가 광장은 프라하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고딕스타일의 틴 성당, 바로크 스타일의 미쿨라쉬 성당 외의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집합되어 있어 다양한 건축양식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축 박람회장 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주요 볼거리는 1338년 건축된 구 시청사, 틴 성당,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를 기린 얀 후스 동상, 천문시계 등



○ 천문시계(Orloj)

-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만들어진 시계로, 1410년 프라하 시청사의 요청으로 두 명의 시계공(미쿨라스, 하누쉬)과 한 명의 수학자(얀 센델)가 제작함
- 완성된 시계가 너무 아름다워 시계공에게 시계 제작 요청이 쇄도하자, 프라하 시의회에서 같은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계공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옴



- 가장 아랫부분은 일종의 달력 역할을 하는 캘린더리움이며, 가운데 부분은 천체의 움직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아스트로라비움, 매 정각 두 개의 창문을 통해 12사도의 행진을 보여주는 12사도의 행진부분,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 아스트로라비움의 바깥 원은 청색, 흑색, 그 사이사이에 갈색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낮, 밤, 새벽, 저녁을 나타내며 안쪽 원은 태양, 달, 북극을 상징
- 캘린더리움은 1년 12달을 상징하며 가장자리를 따라 매일을 상징하는 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 바츨라프 광장(Václavské náměstí)

- 카를 4세 때 무역으로 기존 도시가 팽창하면서 신규로 건설한 신시가지 내 광장(길이 750m, 폭 60m)
- 바츨라프 광장은 카를 4세의 재위 동안 주로 말을 거래하던 광장이었기 때문에 말시장 또는 신시가지 광장으로 불렸으나 1800년 중반 민족주의가 싹트면서 바츨라프 광장으로 개명됨
-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으로 성 바츨라프 기마상 밑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출범이 선포되었고,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을 때 체코국민들이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저항하였으며, 1989년 민주화혁명(벨벳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등 체코 근대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바츨라프 광장에서 일어남
- 바츨라프 광장 중앙에는 바츨라프 기마상이 있는데, 동상의 성 바츨라프는 921년 보헤미안의 군주로 국난의 시기에 중부 보헤미아 브라니크 동굴에 잠들어 있던 기사들을 깨워 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적 왕이며, 보헤미아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한 공로로 사후 성인으로 추대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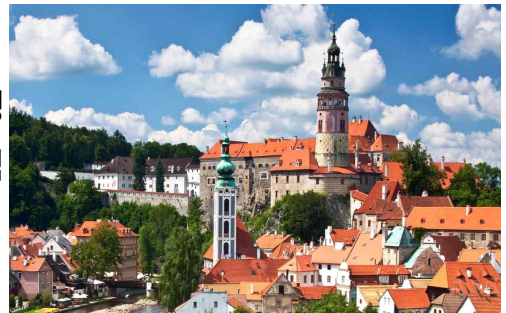
2. 체스키 크룸로프(Český Krumlov)

□ 체스키 크룸로프 정보

- 체스키 크룸로프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남 보헤미아에 위치한 동화 속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도시로, 중세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으로 유명함
 - 1992년 체스키 크룸로프의 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연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음

□ 주요 관광지

- 체스키 크룸로프 성 (Zámek Český Krumlov)
 - 13세기 세워진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으로,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이 재현되어 있어 중세 귀족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음



- 스보르노스티 광장(Namesti Svornosti)

-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구시가의 중심지로 고딕 양식의 성 비투스 성당 등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하고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 중 4층 건물의 시청사와 하얀 건물의 경찰서가 있음
 - 시청사와 경찰서 건물은 원래 체르트 가문이라는 한 부유한 가문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각각 시청사와 경찰서로 나누어 사용



3. 쿠트나 호라(Kutná Hora)

□ 쿠트나 호라 정보

- 프라하에서 북서쪽으로 약 79km 거리에 소재한 쿠트나 호라는 14세기 은광이 발굴되면서 번성한 도시로 약 200여년 간 보헤미아 왕국의 제2의 중추적 경제도시이자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 1995년 주요 역사지구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들 건축물은 당시 사적 부유 생활과 더불어 중세 유럽풍 구조의 도시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주요 관광지

- 성 바르보라 성당(Chrám sv. Barbory)
 - 광부들을 지켜주는 바르보라 수호 성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당으로 체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후기 고딕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음. 성당 앞에 고즈넉한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도 볼거리중의 하나



- 은광 박물관(České muzeum stříbra)
 - 14-15세기 은광과 조폐소가 있던 지역으로 쿠트나 호라 광부들의 역사와 실제 은광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당시 유럽에 통용된 은화의 제작과정도 볼 수 있으나 겨울시즌에는 체험은 불가

- 성모 마리아 대성당(Chrám Nanebevzetí Panny Marie)
 - 후스 전쟁 때 불에 타 소실되었다가 1707년 다시 유럽의 대표적 바로크 양식으로 복구되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유명 건축물로 중세 중부유럽 건축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침.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일품이라는 성당



○ 해골성당(Kostnice Kutná Hora - Sedlec)

- 13세기 시토수도회 수도원장이 예루살렘 순례길에 성지의 흙을 가져와 뿌린 이후 많은 이들이 이곳 공동묘지에 묻히고자 하였으며, 특히 14-15세기 유럽 내 흑사병이 창궐 하고 후스 전쟁 등으로 시체들이 즐비해지자 이곳에 납골당과 함께 고딕양식의 성당을 짓게 됨.



납골당에는 현재 4만 여명의 해골과 뼈들을 모아 소독하여 상들리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장식을 해 놓아 이색적인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 이 같은 장식은 1511년에 半장님이었던 수도회 소속 수도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오늘날의 장식은 1870년 나무 조각가 프란티šek 린트에 의해 완성됨. 특히 상들리제에는 인체의 모든 뼈가 각소에 활용된 게 특징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